“호남을 부처님 법이 가득한 땅으로…”

호남불교포교결집대회 성료

우리나라 불자수는 1985년 805만 9624명에서 2005년 1072만 6463명으로 266만 6839명이 늘어났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67.4%)과 제주(63.7%)다.

반면 ‘호남불교’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29.9%, 23.9%, 33.1%로 부산과 제주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43%보다 낮으며 교세가 제일 약하다는 인천의 27.3%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3개 지역은 무종교인 비율이 높아 불교 발전을 위해 포교의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무종교인 비율이 5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무종교인 비율은 전국 평균 46.5%보다 높거나 유사한 46.3%, 51.0%로 나타났다. 그 만큼 포교의 여지가 전국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조계종 포교원과 호남지역 6대 본사 협의회가 주최한 호남불교포교결집대회가 4000여 스님과 신도들이 염주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10월 30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호남6대교구 본사 주지와 각 말사스님 200명과 포교사단, 합창단을 비롯해 호남지역 불교신행단체가 참여했다.

‘다시 함께 세상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결집대회는 한글금강경 독송, 오분향례, 전도선언문을 동시에 합송해 큰 감명을 전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호남불교중흥원년으로 삼고 한국 제1의 전법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염원으로 개최돼 호남지역 포교영상과 호남포교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발원문이 낭송됐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포교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호남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그간 힘든 여건이었다”며

호남불교활성화를 위한 포교결집대회가 10월 30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오늘 모인 장엄한 힘으로 스스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부처님 법으로서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제 부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자신 있게 포교 현장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결집대회는 ‘포교가 희망입니다’라는 기치로 2009년 서울을 첫 시작으로 인천, 대전충청 등 전국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계의식을 받고 있는 부사관 후보생

자비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

육군 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

여산 육군 부사관학교(교장 김종배 소장) 호국 충국사(주지법사 효찬)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500여명의 남녀 부사관 후보생들이 참석한 이날 수계법회에서 효찬 스님은 불자들의 기본이 되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한 후 부사관 임관 후에도 불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군 생활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전북포교사단 익산군포교팀 김동확 포교사, 호국 충국사 금강회원등이 함께 참석해 수계교육생들을 축하했으며 부사관 후보생들은 모두 삼귀의계, 오계를 합송하며 진실된 불자로 군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육군부사관학교는 2000여 부사관 후보생들이 10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호국충국사는 현재 매주 2회 법회마다 5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배우며 마음까지 정화

부산 동림사, 고등학생 문화체험

부산 동림사(주지 효산)은 11월 2일 동림사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부산 마케팅고 학생 15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요가명상, 다도체험, 장식용 미니솟대 만들기, 전통한지에 선화그리기, 둘레길 걷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효산 스님은 “학생들이 좀 더 불교를 가까이 하도록 이러한 문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에 참여한 이주영 학생은 “낯선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고, 특히 요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림사 주지 효산 스님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문인화부문), 전국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 및 특선을 연 2회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회원으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불심으로 만든 지역축제

저절로 생협, 광주전남불교신도회

불자들의 생협 조직인 저절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과 광주전남불교신도회가 주최한 제1회 남도문화축전이 10월 28~31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중국장애인예술단의 ‘my dream’ 공연을 시작으로 7080그룹의 세대 공감 콘서트,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침·뜸으로 유명한 한국 침구학회 구당 김남수 선생의 시민들을 위한 무료봉사가 진행됐다. 또 행사기간 동안 염주체육관 주변에 마련된 부스에는 전남 24개 시군의 전통공예 및 전통음식,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등이 선보였다.

행사의 꽃인 중국장애인예술단의 ‘my dream'이라는 주제의 공연에는 2일간 전체 5000여 명의 관중들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의 드라마’라는 칭송을 받았던 천수관음이 펼쳐지자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큰 박수가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청년회 활동 새바람

고창 선운사, 청년회 창립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불자 양성에 나섰다.

선운사는 10월 29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20여 명의 청년회 창립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운사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만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불교 청년회는 불교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불교경전을 통한 마음수양을 토대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청년불자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주위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법회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법회를 가진 선운사 청년회는 10월 8일 영산전에서 창립법회준비모임을 갖는 등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활동계획수립을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기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단신

파계사, 공립선재어린이집 개원

대구 파계사(주지 법광)는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율하휴먼시아아파트 10단지에 늘 꿈이 있는 아이들의 쉼터 공립선재어린이집(원장 구원옥)을 10월 28일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 이재만 대구동구청장 및 현승용 대구보육시설연합 회장 등 지역 관계자와 불자 20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11회 갓바위 축제 성료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주제로 한 제11회 경산 갓바위 축제가 10월 28~29일 경산 갓바위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축제에서는 갓바위 부처님 전 다례재 봉행을 시작으로 경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삽살개 묘기 대행진, 주민 노래자랑, 경산갓바위 사진전, 골굴사 선무도 공연과 함께 선본사 소원기원법회 등이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4회 원효 설총 요석궁주 육법공양대재회

청도 반룡사(주지 혜해)는 10월 30일 대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한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및 영천산자연학교장 정홍규 신부 외 2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원효 설총 요석궁주 육법공양대재회를 봉행했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원효 설총 요석궁주는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개최

“모든 중생의 원을 담은 오백나한들의 가피로 광주시민들의 평안과 안락을 기원합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11월 5일 오백전 앞마다에서 ‘오백나한대재’ 행사를 봉행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열리는 오백나한대재는 매년 광주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각 500분의 나한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의식으로, 행사에는 지장 스님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